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 第1次 會議錄 —

1989. 10.

國 土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一 般 事 項 ………………………………………… 3

2. 會　議　錄 ………………………………………… 7

附錄：代表團 記者會見 ……………………………… 77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89. 9. 27 (水) 10:00 ~ 12:16

나. 場　所 :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首席代表〉	〈團 長〉
宋 榮 大	박 영 수
(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 兼 代辯人)	(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常務委員)
〈代 表〉	〈代 表〉
李 峻 熙	김 광 수
(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	(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委員)
李 柄 雄	정 덕 기
(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	(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責任指導員)

會　　議　　錄

2. 會 議 錄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南(宋榮大):오래간만입니다.

北(박영수):오랜만입니다.

南(李柄雄):아이구 이거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北(김광수):오랜만입니다.

南(宋榮大):반갑습니다.

南(李峻熙):이거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北(정덕기):반갑습니다.

南(宋榮大):날씨도 궂은데 遠路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北(박영수):나와서도 한참 좀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던 것인데.

아, 날씨를, 날짜를 잘못 잡았단 말이예요. 이거 …….

딱 비(雨) 오는 날 받을 건 뭐요? 이것.

南(宋榮大):비오는 날이 있으면 햇볕이 나는 날도 있고요.

北(박영수):햇볕나는 날을 차라리 골랐으면 좋은데 그저, 날씨는 …….

南(宋榮大):저는 오늘 서울을 떠나 가지고 여기 오면서 비가 내리는 統一路 沿邊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이면 날씨가 淸明했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 赤十字會談이 오랜 中斷이라고 하는 「雨期」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雨期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서 햇볕이 쨍쨍 비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北(박영수):그런데 首席代表先生이랑 모두 다 잘 있습니까?

南(宋榮大):예, 다들 별고 없습니다.

北(박영수):뭐 趙先生은 赤十字社 그만 두었다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

南(宋榮大):예, 그만두고 다른 個人事業을 하고 있습니다.

南(李柄雄):우리 김광수 先生은 1970 年代부터 우리 會談에 같이 참여했었는데 …….

北(김광수):예, 이렇게 되어서 祝賀합니다.

南(李柄雄):이제 代表로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南(宋榮大):우리 代表團들이 이제 아는 분들 만나서, 사실 舊面親舊 만나는 것 같아서 오늘 雰圍氣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北(박영수):요새 뭐 어떻게 지냈습니까?

南(宋榮大):우리는 저 지난 週가 秋夕이었잖아요?

그래 秋夕을 맞이해서 나도 省墓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故鄕을 찾고, 省墓를 하고 家族・親戚을 訪問하고 또 地域에 따라서는 民俗놀이도 하고 해서 참 뜻있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秋夕名節을 맞이할 때마다 조금 쓸쓸하게 지내는 분들이 계셔요. 그 분들이 바로 南北 離散家族들 입니다.

省墓를 하고 싶어도 가서 볼 墓地가 없고 또 家族들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남모르는 외로움을 달래면서 쓸쓸하게 지내는 것을 볼 때에 저는 赤十字人의 한 사람으로서 離散家族들에 대해서 罪責感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1970 年代初에 시작한 赤十字會談을 1980 年代가 가기 前에 마

무리를 짓고 1990年代初에는 離散家族들이 自由롭게 往來할 수 있는 길을 뚫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民族共同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血緣共同體를 回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다짐을 스스로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北(박영수):우리는 그저 그 사이에 한 두어달 가량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바쁘면서도 또 보람있는 나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第13次 世界青年學生祝典이 있었고 또 그 期間에 數千名의 海內外 同胞들이 參加한 祖國統一促進大會가 있었고 또 數十個 나라들의 平和人士들이 參加한 國際平和大行進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큰 行事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行事를 통해서 가장 重要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北과 南으로 갈라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하나다. 또 절대로 갈라져서는 살 수 없다. 꼭 하나로 되어야 할 民族이다.

이것을 온 世界萬邦에 誇示했다는 意味에서 상당히 보람있는 나날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마음 속으로 말이죠, 마음 벗어난 그런 소리는 안해요, 솔직히 말하면, 자 이제 뭐 우리 對話가 끊어진지 오래되었는데 이것은 이어지지 않지, 우리가 다 보고 있는것처럼 南北關係, 이 北南關係가 지금 자꾸 惡化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게 지금 和解가 되지않고 惡化가 되고 있고…….

또 우리 離散家族들, 北과 南으로 흩어진 家族·親戚들은 그래서 더욱 이거 어떻게 빨리 좀 만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心情을 우리가 항상 눈으로 보고 또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이게 赤十字人들이 도대체 뭘 하냐? 이런 뭐 使命感, 이 責任感에 대해서 많이 생각 안해도 될 것인가?

南(宋榮大) : 아니, 그런 것은 …….

北(박영수) : 그래 한쪽으로는 기쁜 일도 많았지만 평소 마음속으로는 좀 고생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南(宋榮大) : 지난 1985年에 平壤을 訪問하였던 우리側 離散家族 故鄕訪問團 및 藝術公演團 一行들이 每年 9月20日이 되면 한 자리에 모여서 紀念式을 갖습니다.

지난번 9月20日날도 이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4年前의 일을 회고하면서 올해에도 그와같이 좋은 慶事스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 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얘기가 이번 實務代表 接觸에 나가서 꼭 좋은 「作品」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단 이 분들의 생각 뿐만 아니라 지금 온 겨레의 輿望으로 보아서 우리가 이번 接觸에서 정말 훌륭한 作品하나 만들어야 되겠고, 나는 거기에 對備해서 오늘 이 가방 속에다가 作品設計圖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朴先生께서도 가지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두개 내놓고 한장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北(박영수) : 나는 이 赤十字會談을 어떻게 생각해 보았느냐 하면, 이게 하나의 배(舟)다, 그래 둘이 배를 탔단 말이예요, 會談에 이제 마주 앉았으니까 배를 둘이 탔는데 …….

이 배가 이제 自己 目的地로 잘 가려면 한 사람이 탄듯이 마음이 合心이 되어야 된다. 옛날부터 同床異夢이라고 한 베개 베고 자면서도 서로 딴 꿈을 꾼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배는 같이 탔는데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다 가면 이 놈의 배가 目的地로 못가고 뭐 하늘로 올라가든지, 물속으로 쳐박히든지 이 두 兩者間에 하나가 되겠다.

지금까지 現在 1970年代부터 우리가 會談을 해 왔는데, 그 배의 例에서 말하자면 같이 타고 떠나다가 이게 자꾸 침몰되거나 도로 가곤 했단 말이예요.

그래 이번에 이건 모처럼 우리 4年만인가, 5年만인가요?

南(宋榮大): 4年만이죠.

北(박영수): 4年만에 이거 다시 열렸는데, 또 이 時期가 重要하다. 이게 1980年代 마지막 해가 되니까. 來年에는 1990年代를 맞이하는데 이 1980年代의 마지막 해에 열린 이 赤十字會談 實務代表接觸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成功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말로 會談에 나와서 成功시키자, 成功시킨다 이것은 좋은데,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만 가지고 안되고, 이 會談을 成功시키자면 무엇이 重要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基本使命입니다.

흩어진 겨레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것이다. 여기에다 우리가 모든 것을 服從시키자. 우리 立場도 좀 가린게 있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그건 사실이고 …….

그래 그것, 나, 너 이것 생각하기 前에 흩어진 겨레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여기에 모든 것을 服從시키고, 또 그러자면 서로 理解하고

讓步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저 우리가 會談 잘 하겠다, 잘 하겠다 이 말 가지고는 不足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基本 옳은 姿勢를 가지고 會談에 임하면, 우리 지금 責任感도 크지 않습니까? 이게 1980年代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實務代表接觸은 어떻게 하나 꼭 成功을 시켜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南(宋榮大):그 意味가 말의 盛饌이 아니라 實踐意志가 重要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의 接觸이 朴先生도 이제 얘기한 바와같이 時期的으로 매우 重要한 때에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다음 달에 南北高位當局者會談 豫備會談을 비롯해서 南北體育會談·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등 몇 갈래의 會談이 豫定되어 있습니다.

우리 赤十字人들이 이미 1970年代初에 南北關係 改善에 先導的 役割을 했었듯이 이번에도 우리가 南北關係 改善에의 길을 豫備하는, 豫備하는 役割을 遂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點에 우리 雙方의 意見이 같다며는 뭐 오늘 接觸은 成功的으로 잘 이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南(李峻熙):더구나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어제께부터 「韓民族體育大會」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할린」同胞를 비롯해서 全部 다 海外에서도 다 모이는데 유독히 離散家族만 지금 서로 往來가 잘 안된다는 이 말이예요.

그런 點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接觸이 時期的으로도 重要한 處地에

있으므로 우리가 다 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南(宋榮大):자, 이제 우리가 會談을 좀 시작해야 되겠는데 會談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會議의 公開與否입니다.

나는 先例도 있고 또 오늘 接觸이 實務代表間의 接觸이고 나아가 오늘 會談을 보다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해서 非公開로 運營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貴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南(李柄雄):뭐 實質的인 討議를 하려면 非公開로 해야 무엇이 좀 잘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朴先生 얘기한대로 한 배에 탔다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 한 배에 탄 것 한 마음으로 한번 잘해 봅시다.

北(박영수):나는 어떠한 생각인가 하면, 원래 이 赤十字가 무엇을 감추고 하는 것은 원래 없다고 봐요.

나는 다 보는데서 輿論의 裁判을 받으면서 하는게 이게 더 效果도 있을 것 같고 …….

南(李峻熙):非公開가 감추자는 것은 아니죠.

北(박영수):아니 어떻게 하는게 非公開입니까?

또 한가지는 우리가 관례에도 그렇고 赤十字를 지금까지 감추어서 하는 法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接觸이라고 그래서 뭐 특별히 非公開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 接觸이 지금 滿 4 年만에 열렸는데 이 接觸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內外人民들, 특히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관심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實務代表接觸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

테 다 그대로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무슨 이번 實務代表接觸을 非公開로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 뭐 있습니까?

北(김광수): 나는 記者들이, 非公開로 하면 다들 會談代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특별한게 없으면 從前대로 公開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南(宋榮大): 오늘 우리가 오손도손 討論을 해서 여기에서 얻어진 좋은 結論을 가지고 雙方이 함께 온 겨레앞에 發表한다면 더 以上 좋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지난 1985年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차례에 걸쳐서 實務接觸을 했었는데 그때는 모두다 非公開로 進行을 했었습니다.

또 赤十字本會談도 非公開를 原則으로 運營하고 있습니다. 그래 本會談도 非公開를 原則으로 運營하고 있는데 實務代表接觸을 公開로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어울리지가 않는다.

더군다나 이 會議를 조금 效率的으로 運營을 해가지고 당장 結實을 맺으려고 그런다면 역시 公開보다는 非公開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北(박영수): 非公開라는 뜻이 뭐요? 그래 記者들 다 내보내고 우리 조용히 마주앉아 오손도손 討論하는 것은 좋고, 記者들 다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會談進行 定型에 대해서 어쨌든 관례는 두어야 되니까 그것은 그저 自己便宜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南(宋榮大): 그러니까 公開로 하고 그 代身에 우리 記者先生들은 밖에

나가서 記者室에서 있으면서 取材를 하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北(박영수):아니, 그러니까 非公開라는 뜻이 뭔가?

나는 일단 우리가 基本問題 討議를 시작할 때에는 記者분들은 다 내보내고, 그러면 뭐 우리 여섯명이 오손도손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會談定型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려주지 않을 수는 없다 그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저 적당히 各其 나가서 뭐 記者會見를 통해서든지 그날 會談定型을 간단히 알려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게 뭐 그렇게 하는데 무슨 關係있는게 없잖아요? 감추자는 것은 아니니까.

南(李柄雄):會議하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되는대로 있으면 안되니까는 우리가 웃도리를 벗고 實務的인 問題를 오늘 끝내자 이런 式으로…….

北(박영수):아, 언제 우리가 記者분들 다 參席한 좌석에서 會談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記者분들은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손도손 애기하면 되지 않겠는가?

南(宋榮大):그러니까 公開를 原則으로 하되 記者先生들을 좀 내보내는 그런 方向에서 運營하자 그런 뜻입니까?

北(박영수):뭐, 公開를 原則으로, 非公開를 原則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그저 記者분들 다 내보내고 그저 우리끼리 깊이있는 討議를 하고, 그렇다면 전혀 發表를 안할 것을 염두에 둡니까?

南(宋榮大):아니, 물론 發表해야지요. 그런데 問題는 이것입니다.

公開냐 非公開냐 하는 差異點은 記者先生들이 일단 밖으로 나가더라도 우리 말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記者室로 연결을 해서 中繼를 하고 있

잖아요?

北(박영수): 아, 그래 …….

南(宋榮大):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差異가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北(박영수): 그 問題는 이제 宋先生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오손도손 이야기 할 수 있게 하자 하였으니까, 뭐 記者들이 記者室에서 擴聲器를 듣는거야 뭐 우리 會談하는데 장애없지 않는가? 오손도손 이야기 하는데 장애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두자는 것입니까?

南(李峻熙): 아니, 非公開로 하자는 概念은, 지난번의 例를 따르면 記者분들은 각자 會議室에서 철수를 하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會議를 하고난 뒤에 그 內容은 各其 記者室에 가서 公開로 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北(박영수): 아, 알겠습니다. 記者室에다 擴聲器를 이거 내보내지 말자, 그것도 보내지 않는다 그것입니까?

南(宋榮大): 우리는 그저 公開와 非公開의 差異를 그렇게 區分하고 있는데 貴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말입니다.

北(박영수):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곳 記者들이 아예 못듣게 하자는 건가?

우리는 내보내고, 여기에서는 일단 내보내되 記者들이 記者室에서 擴聲器로는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하는 건데 그게 만약 뭐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南(宋榮大):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公開를 하는데 이번 接觸은 그런 方式으로 하고, 公開方式으로 하고 만약 次期接觸이 있을 경우에, 내 생각으로는 오늘 다 끝났으면 합니다마는 만약 次期接觸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非公開를 原則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일단 合意를 하죠?

北(박영수): 그것은 그때가서 봅시다. 뭐 다음번 것까지 여기에서 決定을 하는 것은 …….

南(李柄雄): 지금까지 우리가 이 問題를 協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從前式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協議를 하고 또 充分히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서 合意된 것을 서로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게 하면 더 實質的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

北(박영수): 그러니까 오늘은 그럼 내가 아까 말한대로 公開로 합니까?

南(宋榮大):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北(박영수): 그럼 뭐 오늘은 일단 公開로 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음번에는 또 뭐 討論해서 하든지 …….

아, 우리는 이것을 記者들 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럴 必要性도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저 우리가 主張하는 것은 이거 오랜만에 열렸으니까 이 會談이 도대체 어떻게 進行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할 거란 말이예요. 지금 여기 한 백수십명의 記者들이 모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인데 …….

정히 非公開로 하자면 뭐 다른게 없습니다. 그것다 아예 記者들 한테다 …….

南(宋榮大): 제가 말씀한대로 오늘은 貴側의 意見을 尊重해서 公開로 進

行하고 다음번 接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非公開를 原則으로 進行한다.

이렇게 일단 눌러놓고 우리 討議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北(박영수): 아,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南(宋榮大): 그럼, 記者분들은 나가도록 합시다.

〈寫眞記者 退場 및 場內整理〉

南(李柄雄): 다른 분들은 다 잘 있지요?

어디 박동춘先生이 자리를 옮겼습니까?

北(김광수): 아니요.

南(李柄雄): 내가 재작년에 브라질에서 만났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디 딴 데로 가신 모양이죠?

北(김광수): 赤十字 基本事業합니다.

南(李柄雄): 예, 그렇습니까?

北(박영수): 그저 아직 뭐 場所를 整理하는 중인데, 나는 8月2日날 있잖아요? 8月2日날 다 열리는줄 알았단 말이예요. 그저 同意하는 通知文도 왔었잖아요?

그래 나는 사실상 나올 準備를 다 했었는데 그만 그저 안되었단 말이예요. 그저 좀 미리 만났으면 今年度에 뭐 좀 많이 진척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 참 유감스럽습니다.

南(宋榮大): 會談이라고 하는 것이 그 雰圍氣가 重要한 것이예요. 8月2日날 여기 雰圍氣가 그렇게 좋았지는 않았어요.

北(박영수): 여하튼 저 雰圍氣는, 會談하는데 雰圍氣가 좋아야 되지요. 그것은 …….

南(宋榮大): 朴先生은 4年前이나 지금이나 뭐 얼굴에 별 변함이 없는것

같습니다.

北(박영수) : 4年사이에 좀 늙었겠지요.

南(李柄雄) : 세월이 벌써, 뭐 4年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南(宋榮大) : 아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

北(박영수) : 그래 그저 아까 내가 그런 意味에서 그동안에 보람있는 나날을 보냈다. 내 그런 뜻인데 …….

그러면 基本的으로 會談場이 整理된 것 같은데, 어때 첫 發言을 어떻게 하겠는지? 아무래도 그저 …….

南(宋榮大) : 첫 發言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北(박영수) : 뭐 특별히 큰 問題는 없을건데, 이제 아무래도 實務接觸을 우리가 提案한 側이니까 또 그 趣旨도 좀 말씀드리는 겸 해서 이제 이런데 꼭 먼저 해야될 必要性이 없다면 내가 좀 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

南(宋榮大) : 그 뭐 必要性 보다도 會談 公開與否는 貴側意見을 우리가 尊重했으니까 …….

北(박영수) : 公開與否 問題는 結局은 그쪽 案대로 된거지요. 다음번 부터는 非公開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南(宋榮大) : 아니, 그래도 오늘이 重要한건데 …….

그럼 내가 먼저 좀 이야기 하지요.

北(박영수) : 뭐, 정 하고 싶으면 하시지요.

南(宋榮大)

〈우리側 첫 發言〉

代表여러분 !

오늘 우리는 第11次 南北赤十字會談 開催問題와 第2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問題를 協議하기 위해 實務代表接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千萬 南北離散家族들의 재회를 實現하기 위해 南北赤十字會談을 始作한지도 18年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온 겨레의 關心과 期待속에 진행된 南北赤十字會談은 1985年 分斷以後 처음으로 南北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교환방문을 실현시키는 등 成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中斷과 膠着 등 적지않은 迂餘曲折도 겪음으로 말미암아 이 會談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失望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오래전에 열렸어야 할 第11次 南北赤十字會談이 4年 가까이 遲延되고 있고 이로인해 離散家族再會事業이 그만큼 늦어진 것은 매우 안타깝고 遺憾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貴側도 아는 바와 같이 오늘의 世界는 理念과 體制를 초월하여 開放과 共存, 和解와 協力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人道的 分野에서의 交流와 協力이 나날이 增大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같은 民族끼리 家族과 親戚을 지척에 두고서도 계속 生死와 住所조차 모르고 지낸다면 그러한 悲劇과 羞恥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南北離散家族들간에 재회의 길을 트는 일은 離散家族을 비롯한 우리 겨레 全體의 悲願인 동시에 拒逆할 수 없는 世界史的 潮流로서 더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課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동안 離散家族들의 不幸과 苦痛을 하루속히 폭넓게 덜어주기 위해서는 本會談의 早速妥結과 事業實踐에 있다고 믿고, 가능한 모든 努力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는 第 10次 南北赤十字會談에서 議題 5個項의 事業實施에 관한 合意書案과 자유왕래 절차에 관한 合意書案, 그리고 赤十字共同委員會 및 板門店 共同事業所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案 등 종합적인 合意書案을 提示하였습니다.

그후 우리는 南北赤十字會談이 人道主義 事業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問題로 인해 影響을 받거나 妨害를 당해서는 안된다는 立場에서 예정된 第 11次 會談의 개최를 促求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本會談이 妥結되기 이전이라도 離散家族問題 解決의 길을 다지고 비록 制限된 人員에게나마 血肉相逢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 第 2次 離散家族 故鄕訪問團의 교환을 貴側에 提議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우리側 노력은 人間苦痛의 해소를 위해 赤十字事業은 어떠한 條件과 環境속에서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崇高한 赤十字 人道主義 精神에서 비롯된 것이며, 血肉相逢의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離散家族들의 輿望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려는 간절한 所望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代表여러분!

南北離散家族問題 解決을 위해서는 순수한 赤十字 人道主義 精神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實踐에 옮겨나가야 합니다.

人道的 問題는 政治나 體制를 초월하는 崇高한 問題이기 때문에 政治

的으로 利用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人道的 事業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를 내세워 會談을 계속 中斷시키거나 또는 南北離散家族 再會事業과 연계시켜 다른 目的을 追求하려는 자세는 마땅히 止揚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最近 貴側이 離散家族問題 推進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雙方 赤十字團體들이 기울여 온 努力을 스스로 外面하면서 우리 法秩序를 違反한 特定個人과 貴側 非赤十字團體와의 合意를 앞세우고 나온 것은 온당치 못한 態度라고 생각합니다.

雙方 赤十字團體들은 70年代初부터 離散家族再會事業을 赤十字 人道主義 정신과 原則, 南北共同聲明의 정신 등에 基礎하여 추진하기로 合意하고 공동의 努力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第10次 會談에서 雙方이 本會談 議題 5個項 사업추진에 대한 각기의 合意書 草案을 제시하고 討議를 展開하였으며 지난 1985년에는 역사적인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交換을 實現시킴으로써 離散家族問題 解決의 基礎와 土臺를 마련하고 그 可能性을 온겨레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貴側이 離散家族問題 해결의 可能性을 다른 데에서 찾고 그것을 굳이 强調하는 것은 人道主義 會談을 다른 目的으로 利用하려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疑懼心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人道主義 事業을 원만히 解決하기 위해서는 1千萬 離散家族 전체의 不幸과 苦痛을 根本的으로 폭넓게 풀어주는 努力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本會談 議題 5個項 事業을 실천에 옮길 때만이 비로소 可能

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中斷된 第11次 會談을 하루빨리 열어야 합니다.

第10次 會談에서 雙方이 내놓은 提案을 볼 때 一部問題에 差異點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議題 5個項 事業實施를 위한 방법 등에 意見接近을 보였다는 點에서 雙方이 앞으로 한 두차례 정도의 會談을 더 갖게 된다면 本會談이 완전히 妥結될 段階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妥結段階에서 中斷된 本會談이 4年이 가까워 오도록 열리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에 高齡의 離散家族들 가운데 世上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해가고 있는 現實을 直視할 때, 우리는 赤十字人들로서 응분의 責任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第11次 會談 開催問題는 雙方間에 이미 場所를 비롯한 모든 것이 合意되어 있고 날짜만이 未定狀態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를 實現시키겠다는 意思만 있다면 이 자리에서 쉽게 合意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第11次 會談의 開催가 계속 遲延되고 이로 말미암아 離散家族들의 苦痛이 加重된다면 이는 그 어떠한 理由나 名分으로도 正當化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 겨레로부터 非人道的이라는 非難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本會談 妥結을 위한 努力과 함께 南北間에 離散家族 故鄕訪問團 交換事業을 다시 실시한다면 離散家族을 비롯한 온 겨레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게 되고 南北關係 改善에도 크게 寄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交換訪問事業은 어디까지나 離散家族의 苦痛解消를 위한 根

本問題 解決 노력과 함께 推進하는 것이 離散家族들의 意思에 맞고 또 우리 赤十字事業의 先例와도 부합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貴側도 아는 바와같이 第1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교환은 第8次 會談에서의 原則合意를 바탕으로 雙方間에 그 規模·方法 등 구체적 문제 協議를 위한 實務代表接觸의 진행과 同 實務代表接觸 合意事項에 대한 第9次 會談의 確認節次 등을 거쳐 成事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先例를 考慮하여 그동안 貴側에 보낸 편지에서 第11次 會談을 열고 議題 5個項 事業討議와 함께 第2次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問題를 協議하여 실현시켜 나갈 것을 누차 强調하였던 것입니다.

貴側도 南北赤十字 本會談 再開問題에 관해, 지난 6月 22日字 便紙에서 雙方 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을 갖고 이자리에서 第2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問題와 함께 討議하겠다는 立場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貴側의 態度에 留意하는 한편 離散家族의 苦痛解消를 위해서는 주어진 모든 可能性과 機會를 최대한 살리려는 뜻에서 이번 實務代表接觸에서 本會談 開催問題와 第2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問題를 討議할 생각입니다.

이상과 같은 見地에서 나는 오늘 우리의 接觸이 離散家族問題 解決의 새로운 실마리를 푸는 機會가 되길 期待하면서 第11次 南北赤十字會談 開催問題를 비롯하여 第2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교환문제에 대한 우리側의 意見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자 합니다.

첫째, 第 11 次 南北赤十字會談 開催問題

(1) 第 11 次 南北赤十字會談은 1989年 11月 1日 平壤에서 開催 한다.

(2) 本會談 議題를 비롯하여 代表團 構成, 會談運營節次, 代表團의 往來方法 등 本會談 進行에 따른 其他 問題는 종전의 慣例에 따라 推進한다.

(3) 第 11 次 南北赤十字會談에서 第 2 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에 관한 雙方 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의 合意事項을 確認한다.

둘째, 第 2 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問題

(1) 訪問團 規模

- 團 長 : 各 赤十字社 責任者 1名
- 故鄕訪問團 : 各 300名
- 藝術公演團 : 各 50名
- 取材記者 : 各 100名
- 支援人員 : 各 50名

　　* 各其 總 501名

(2) 訪問地 및 公演場所

- 離散家族 故鄕訪問人員은 자기 故鄕을 직접 訪問, 家族과 親戚을 相逢하고 省墓를 하도록 한다.
- 藝術公演團은 서울과 平壤에서 公演한다.

(3) 訪問時期 및 期間

-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交換은 1989年 12月 8日부터 12月

13日까지(5泊6日) 日程으로 實施한다.

(4) 故鄕訪問團 構成

o 故鄕訪問團은 南과 北에 고향을 둔 離散家族들로 構成하되, 相逢對象者가 確認된 離散家族을、優先的으로 이에 包含시킨다.

(5) 그밖에 訪問團 名稱을 비롯해 訪問方式, 相逢範圍, 藝術公演團의 公演回數, 公演內容, 公演時間, 公演에 따른 事前措置, 身邊安全保障, 輸送, 通信, 取材, 通過方法, 滯留日程協議, 身分證明 등 諸般事項에 관해서는 先例에 따라 推進한다.

나는 以上에서 提示한 우리側의 提案은 무엇보다 먼저 離散家族들의 苦痛을 한시바삐 덜어주어야 할 赤十字人道主義 精神과 우리 實務代表接觸의 使命에 전적으로 符合되는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方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以上과 같은 우리側 提案을 中心으로 討議가 進行되어 좋은 結實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나는 우리 赤十字人들이 離散家族들의 立場에서 그들이 바라는 問題를 당장 한가지라도 더 解決해 주려고 할 때, 우리側이 지난 1月 24日 貴側에 보낸 4,346名의 離散家族찾기 依賴人名單에 대한 措置와, 第1次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時 相逢家族들의 애타는 呼訴에도 關心을 기울여야 할줄로 압니다.

나는 雙方 赤十字團體들이 誠意있는 努力을 조금만 기울인다면 이들의 生死·住所確認 및 書信交換은 충분히 可能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貴側의 肯定的인 呼應을 期待합니다.

北(박영수): 비교적 길게 發言을 했는데 그 發言가운데는 몇가지 問題에서 우리의 立場表明을 반드시 必要로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오늘 會談에 臨하는 우리의 立場을 밝힌 다음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먼저 發言을 하겠습니다.

〈北側 基本發言〉

南側代表여러분!

오늘 우리는 北과 南으로 흩어진 家族, 親戚들과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雙方 赤十字團體들의 實務接觸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비록 늦게나마 오늘 雙方 實務代表들의 接觸이 마련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 아는 바와같이 南朝鮮 水災民들에 대한 우리의 救護措置가 實現된 것을 契機로 12年만에 再開되었던 北南赤十字 本會談이 中斷된 以後 우리는 흩어진 겨레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問題를 좋은 雰圍氣속에서 풀어나가기 위하여 모든 誠意와 努力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側은 밝은 展望을 내다보면서 進行되어오던 여러갈래의 北南對話들이 또다시 中斷되고 北南關係가 極度로 惡化되고 있던 最近時期 어떻게하나 情勢를 緩和의 方向으로 돌려세우려는 目的에서 여러차례에 걸치는 建設的인 提案들을 내놓고 그것을 實現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努力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側의 發起들이 實現되었더라면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緩和의 局面이 열리고 흩어진 겨레들에게 血肉들과의 相逢에 대한 기쁨과 希望을

안겨주게 되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側의 거듭되는 人道主義的 發起들은 어느하나도 實現되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얼마전에는 人道主義 會談이 無期延期되는 嚴重한 情勢까지 造成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7月 北南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이 無期延期되었을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흩어진 家族, 親戚들은 물론 온 겨레가 심심한 憂慮를 表示하였습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이번 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이 마련되게 된것은 참으로 多幸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동안의 迂餘曲折끝에 實務代表接觸이 마련된 오늘 우리 代表들앞에는 現時期 日程에 올라있는 人道的 問題들을 迅速히 討議·解決함으로써 흩어진 家族, 親戚들과 온 겨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할 重大한 課業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代表들은 자기에게 賦課된 責任의 重大性을 재삼 깊이 새기고 分裂로 인하여 쌓이고 있는 겨레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데 모든 것을 服從시키는 立場에 서서 上程된 問題들을 順調롭게 풀어나감으로써 그동안 잃어버린 時間을 봉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實務代表接觸에서 討議·解決해야 할 問題들에 대한 우리의 立場을 밝히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接觸에서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問題를 討議·解決하여 빠른 時日안에 그것을 成事시키자는 것입니다.

지금 現實은 말보다 하루빨리 흩어진 겨레들에게 相逢의 기쁨과 希望을 안겨줄 수 있는 實踐的 對策을 취하는 것이 더 절실히 要求되는 때

입니다.

分斷의 障壁이 가로막혀 그리운 血肉들과 生離別을 당한채 40餘年間이나 生死與否조차 모르고 살아야 하는 北과 南의 흩어진 家族, 親戚들은 지금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血肉들이 生存해 있는 期間에 自由로운 來往의 길이 열려 헤어졌던 血肉들과 다시 만나게 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解放의 기쁨을 안고 태어난 해방동이들이 壯年期에 들어서고 그 날의 靑春들이 어느덧 人生의 黃昏期를 맞아 하나, 둘 世上을 떠나가고 있는 現實을 考慮할 때 北南으로 흩어진 겨레들에게 있어서 血肉들에 대한 만남의 要求는 참으로 時間을 다투는 切迫한 問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赤十字人들이 그들의 그 切迫한 要求를 外面한채 모든 條件과 環境이 마련되기를 기다리면서 束手無策으로 歲月을 보낸다면 그것은 참다운 赤十字人들의 姿勢가 아닐 것입니다.

雙方 赤十字人들은 응당 서로 合心하여 中斷된 赤十字 本會談이 열리기 전이라도 모든 可能性을 다 利用하여 흩어진 겨레들에게 相逢의 기쁨과 希望을 안겨줄 수 있는 實踐的 對策을 應當 摸索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赤十字本會談이 열리기 전이라도 8.15解放 44돐을 契機로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을 實現하자고 한 것은 바로 그러한 趣旨에서 出發한 것이었습니다.

1985年度에 이어 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을 交換하게 되면 赤十字會談이 迂餘曲折을 겪고 있는데서 失望하고 있는 흩어진 家族, 親戚들에게 血肉들과의 相逢에 대한 기쁨과 希望을 안겨주게 될 것이며 날을 따라 激

化되고 있는 北南사이의 對決狀態를 緩和하는데 커다란 寄與를 하게 될 것은 疑心할 바 없습니다.

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을 交換하는 問題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事業은 이미 北과 南이 共同의 努力으로 成事시킨 바 있는 좋은 先例와 經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만큼 이 事業은 우리 雙方 赤十字團體들이 다같이 흩어진 겨레들의 不幸과 苦痛을 實質的으로 풀어주려는 立場에만 선다면 얼마든지 당장 實踐에 옮길 수 있는 實現可能한 問題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을 成事시키는 同時에 中斷된 北南赤十字 本會談 再開問題를 討議·解決하자는 것입니다.

北南으로 흩어진 家族, 親戚들의 不幸을 包括的으로 덜어주자면 自由來往을 實現해야 하며 그러자면 中斷된 本會談을 再開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貴側도 다른 意見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오늘 接觸에서 以上의 두가지 問題, 즉 赤十字本會談 再開問題와 함께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問題를 다같이 討議·解決해 나가야 한다고 認定하면서 그와 關聯한 우리側의 提案을 다음과 같이 밝히려고 합니다.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事業과 關聯한 提案

1.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의 構成과 訪問地·訪問時期

①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의 構成은 雙方 赤十字團體 副責任者를 團長으로 하고 藝術團 300名, 故鄕訪問團 300名, 隨員 40名, 記者團

30名 總 671名으로 한다.

②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의 訪問地는 前例에 따라서 平壤과 서울로 한다.

③ 訪問團의 訪問時期와 相對側地域 滯留期間은 1989年 11月 8日부터 11日까지 3泊 4日로 한다.

2. 藝術團의 交換公演

① 藝術團의 公演內容은 民族的인 것으로 하며 相對側을 誹謗하거나 刺戟하는 것을 삼가한다.

② 藝術團의 相對側地域에서의 公演回數는 4回로 하며 每回當 公演時間은 2～3時間으로 한다.

③ 藝術團公演의 成果的 保障을 위하여 招請側은 公演施設이 完備된 場所를 相對側에 提供한다.

④ 藝術公演에 必要한 舞臺裝置와 技術機材, 照明裝置 등은 公演者側에서 가지고 갈수도 있고 相對側 施設을 利用할 수도 있다.

⑤ 公演場所를 事前에 了解하기 위하여 2名의 赤十字일꾼과 3名의 專門일꾼으로 構成된 選拔隊를 相對側地域에 派遣한다.

選拔隊의 派遣時期는 1989年 10月 30日부터 11月 1日까지 2泊 3日로 한다.

⑥ 公演內容과 公演種目紹介는 公演者側의 自由意思에 따라 하되 相對側을 誹謗·刺戟하지 않는 原則에서 한다.

⑦ 公演案內狀은 公演者側에서 準備하여 가지고 가서 觀覽者들에게 配布할 수 있다.

⑧ 招請側은 相對側 藝術團의 公演을 텔레비존放送과 소리放送으로 實況

中繼한다.

⑨ 招請側은 公演者側의 要請에 따라 技術人員과 其他 人員들의 勞力的 幇助를 提供한다.

⑩ 招請側은 公演 開幕前에 公演者側이 公演할 舞臺에서 練習할 수 있도록 便宜를 提供한다.

3. 故鄕訪問團의 交換

① 故鄕訪問 對象은 平壤과 서울에 故鄕을 둔 當事者들을 爲主로 한다.

② 故鄕訪問團成員들의 相逢對象에는 헤어질 當時의 家族과 그들의 子女, 親戚의 경우는 傍系 8寸, 妻, 외켠은 4寸으로 하며 그밖에 本人이 要求하는 親戚도 包含시킨다.

③ 招請側은 赤十字人道主義의 原則에 따라 訪問者들의 希望대로 모든 誠意를 다하여 緣故者들을 찾아주며 그들이 相逢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온갖 條件을 保障한다.

④ 故鄕訪問團成員들에 대한 資料는 出發하기 20日前에 板門店 連絡代表部를 통하여 招請側에 넘겨준다.

故鄕訪問團成員으로 相對側에 갈 對象에 대한 資料에는 寫眞과 함께 姓名, 性別, 年齡, 出生地, 父母의 姓名, 갈라지기 直前의 住所, 職場職位를 밝힌다.

相逢對象에 대한 資料에는 姓名, 性別, 年齡, 出生地, 訪問者와의 關係, 헤어질 當時의 住所와 職業을 밝히며 그밖에 찾는데 必要한 內容을 添附한다.

4. 安全 및 便宜保障

①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과 그 家族, 親戚들의 身邊安全을 위하

여 各其 關係當局이 安全擔保聲明을 發表하도록 하며 그 文本을 訪問團이 相對側地域으로 넘어가기 7日前에 板門店 連絡代表部를 통하여 交換한다.

②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이 板門店 軍事分界線을 넘어선 瞬間부터 그들의 宿食과 交通, 醫療奉仕 등 一切 便宜는 招請側이 責任지고 無料로 保障한다.

③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의 相對側地域 滯留期間 行囊運搬은 招請側에서 每日 1～2回程度 保障한다.

④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의 相對側地域 滯留期間 通信을 保障하기 위하여 現在 北南사이에 架設되어 있는 赤十字 直通電話를 利用한다.

⑤ 招請側은 相對側 記者들이 藝術團과 故鄕訪問團成員들의 活動에 대하여 自由롭게 取材할 수 있도록 모든 便宜를 保障한다.

여기는 記者들의 活動에서 互相 相對方을 誹謗·中傷하지 않는다는 것을 前提로 합니다.

⑥ 招請側은 故鄕訪問團成員들이 家庭的 雰圍氣속에서 家族, 親戚들과 相逢할 수 있도록 모든 便宜를 保障하며 個別相逢時 그들의 人權을 侵害하지 않도록 한다.

5. 其他 節次

①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의 軍事分界線 通過地點은 板門店으로 하며 通過節次는 第1次 訪問團交換 때와 같이 한다.

②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成員들은 自己側 赤十字中央機關이 發給한 身分證明書를 携帶하고 赤十字徽章을 단다.

記者들은 그밖에 記者腕章을 낀다.

③ 赤十字團體 副責任者와 藝術團·隨員·記者들의 名單은 訪問 10日前에 板門店 連絡代表部를 통하여 相對側에 넘겨준다. 名單에는 姓名,訪問團 職位를 밝히며 寫眞을 添附한다.

④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의 相對側地域 滯留와 關聯한 日程協議는 訪問 1週日前에 한다.

以上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事業과 關聯한 우리側의 提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北南赤十字 本會談再開問題와 關聯한 우리側의 提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北南赤十字 本會談問題와 關聯한 提案

1. 本會談 場所

第11次 北南赤十字 本會談은 平壤에서 하고 第12次 會談은 서울에서 한다.

2. 本會談 議程

第11次 北南赤十字 本會談에서는 第10次 會談에서 討議·合意된 內容을 繼承하여 討議한다.

3. 代表團 構成

本會談 代表團은 從前과 같이 雙方 赤十字團體 副責任者를 團長으로 하고 團長을 包含한 7名의 代表와 諮問委員 7名, 隨員 20名, 記者 50名으로 構成한다.

4. 本會談 時日

第 11 次 北南赤十字 本會談 時日은 1989 年 12 月 15 日로 하며 第 12 次 北南赤十字 本會談의 時日은 1990 年 1 月 18 日로 한다.

여기에 添附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第 11 次 北南赤十字會談 時日을 12 月 15 日로 정하고 12 次 本會談의 時日을 90 年 1 月 18 日로 정한 것은 第 2 次 藝術團・故鄕訪問團 交換을 11 月 8 日부터 할 것을 前提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를 조금 두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5. 其他 節次

① 本會談節次는 이미 合意된대로 한다.

② 身邊安全擔保聲明은 다시 發表하고 그 文本을 交換하되 第 11 次 赤十字本會談 參加者들의 名單을 우리側에 넘겨줄 때 交換한다.

以上 赤十字本會談의 再開問題와 關聯한 우리側의 提案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나는 우리 赤十字人들이 無關心할 수 없고 또 온 民族이 注視하고 있는 問題에 대하여 提起하려고 합니다.

貴側도 잘 알고 있는 바와같이 얼마전에 平壤을 訪問하였던 貴側 「全民聯」의 顧問 文益煥牧師와 「全大協」代表 林秀卿學生의 身邊에 危險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文益煥牧師는 이미 無期懲役을 言渡받았고 林秀卿學生 역시 重刑을 言渡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으로 말하면 하나의 핏줄을 나눈 同胞兄弟인 우리 民族이 서로 反目하고 嫉視하면서 敵對視하고 있는 오늘의 悲劇的 事態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和解와 對話와 平和統一의 새로운 突

破口를 열어나가려는 崇高한 目的에서 勇躍 平壤을 訪問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平壤을 訪問하는 期間 어느 一方을 支持하고 다른 一方을 攻擊하지도 않았으며 그 누구의 指令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中斷狀態에 있는 對話를 活性化시키고 祖國統一을 促進하기 위하여 平壤을 訪問하고 서울로 돌아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行動은 마땅히 民族的 和解와 統一을 바라는 사람들의 歡迎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囹圄의 몸이되어 無期懲役을 言渡받고 있는 事實은 民族的 見地에서나 人道的 見地에서나 매우 遺憾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良心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文奎鉉神父들이 自由롭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것을 基本使命으로 하고 있는 赤十字人들일진대 흩어진 겨레의 自由來往을 實施하기로 合意하고 그것을 實踐에 옮기기 위하여 努力하고 있는 마당에서 그에 대하여 外面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는 認定합니다.

事實上 北과 對話를 하겠다고 하면서 北을 訪問한 사람들을 監獄에 가두어 놓는다면 어떻게 信義있는 對話를 할 수 있고 도대체 그러한 雰圍氣속에서야 어떻게 對話를 成功시켜 나갈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貴 赤十字社가 眞心으로 우리의 實務代表接觸과 赤十字 本會談을 再開하는데 關心이 있다면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가 처하고 있는 身邊危險에 대하여 外面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루 빨리 自由로운 몸이 되도록 應當한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고 認定합

니다.

이상에서 나는 오늘 實務代表接觸에 臨하는 우리의 立場과 討議·解決할 問題들에 대한 案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나는 모처럼 마련된 오늘 接觸에서 上程된 問題들을 眞摯하게 討議·解決함으로써 커다란 期待와 關心을 가지고 우리들의 接觸을 지켜보고 있는 흩어진 家族, 親戚들과 온 겨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기를 期待합니다.

제 基本發言을 以上과 같이 끝냈습니다.

南(宋榮大):예, 잘 들었습니다.

北(박영수):그리고 아까 序頭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基調發言에서 적지않게 지난 時期 會談中斷의 責任問題에 대해서 얘기가 됐고 둘째로서는 우리側의 祖國平和統一委員會와 南朝鮮의 「全民聯」 顧問인 文益煥牧師와의 合意事項을 우리가 貴側에 보낸 便紙에서 言及한 데 대해서 다른 目的에 利用하려 한다, 또 지금까지 赤十字人들이 기울여온 努力을 否定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와 關聯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時期 赤十字 本會談이 中斷되고 오늘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는 問題로 말하면 그것은 人道的인 會談이 順調롭게 열릴 수 있는 雰圍氣가 造成되지 못한 데 그 전적인 原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985年度에 赤十字 本會談이 南朝鮮 水災民들에 대한 우리의 救護物資 提供이 實現된 좋은 情勢를 背景으로 좋게 出發해서 또 一連의 結實까지 맺어가면서 比較的 順調롭게 進行되고 있다가, 다 아시

는 것처럼 南쪽에서 人道主義 會談과는 兩立될 수 없고 또 對話相對方을 참을 수 없이 刺戟하는 이런 大規模 戰爭演習이 强行되는 것으로 해서 赤十字 本會談이 一旦 中斷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제가 基本發言에서도 간단히 言及을 했습니다마는 人道主義 會談을 어떻게 하나 再開하고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기 위한 問題를 어떻게 하나 빨리 풀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努力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단 赤十字 本會談이 열리기 전이라도 또 赤十字 本會談을 中斷시킨 根本要因들이 除去되지 않고 있는 오늘의 實情에서 赤十字 本會談이 열리기 전이라도 北과 南으로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不幸과 苦痛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5月 31日에 貴側에 便紙를 보내서 第2次 藝術團·故鄕訪問團 交換問題를 討議·解決하기 위한 實務代表接觸을 提起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側의 建設的인 提案에 의해서 그후 몇차례 雙方 사이에 주고받은 便紙를 거쳐서 지난 8月 2日에는 赤十字 本會談 再開問題와 第2次 藝術團·故鄕訪問團 交換問題를 討議하기 위한 雙方 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이 열리기로 完全合意에 到達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實務代表接觸이 7月 27日에 와서 갑자기 妥當性이 없는 이런 論據에 의해서 無期延期되는 것과 같은 不美스러운 事態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人道主義 會談이 지금까지 잘못되고 있고 또 中斷된 以後에 再開되지 못하고 있고 또 實務代表接觸이 지난 8月 2日에 열릴 수 있었으나 오늘에야 비로소 열린데 대해서는 그 責任에 대해서 深思熟考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文益煥牧師와 平和統一委員會間의 合意事項을 言及한 것을 赤十字人들이 기울여온 노력을 否定한다거나 이런식의 表現이 있었는데 이 問題와 關聯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맞지않는 不當한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우리 赤十字活動을 보면 이것은 赤十字만의 獨占物로 되어서는 그 成果的인 進行을 期待할 수 없고 全 社會的인 關心과 各界各層 大衆의 支持·支援속에서만 成果的으로 進行될 수 있는 普遍的인 또 群衆性을 띠는 活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各界各層의 支援을 呼訴하는 이런 共同聲明을 發表하는 것이 赤十字會談을 再開하고 진전시켜 나가는데서 또 앞으로 北과 南의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問題를 順調롭게 推進해 나가는데 있어서 좋으면 좋았지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目的에 利用하려는 무슨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側에게는 전혀 該當되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赤十字會談을 다른 目的에 利用할 생각을 해본적도 없고 어떻게 하나 北과 南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데 모든 것을 服從시키는 原則에서 지금까지 人道主義會談을 대하여 왔습니다.

지금 赤十字會談을 다른 目的에 利用하고 있는 것과 關聯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貴側에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습니다.

以上에서 오늘 會談에 임하는 우리側의 基本立場을 말씀드렸고 貴側 發言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 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南(宋榮大): 우선 實質問題 討議에 들어가기 전에 貴側의 發言에 대해

몇가지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貴側에서는 本會談이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게 된 責任을 相對側에 轉嫁를 하면서 文益煥牧師·林秀卿孃 問題를 거론했습니다.

本會談이 지금까지 遲延되게 된 원인·배경을 살펴보면 그것은 貴側이 86年 2月 26日 날 열기로한 本會談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遲延되었던 것입니다.

우리側은 86年初 貴側이 本會談 再開를 拒否한 以後에 本會談 再開를 促求하는 電通이나 書翰文을 10여차례 보냈습니다.

기탄없이 만나서 모든 것을 이야기 하자 하면서 具體的인 날짜까지 提示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貴側은 本會談 再開와는 關聯이 없는 問題를 내세워서 이것을 拒否했습니다.

특히 赤十字와는 관계 없는 政治·軍事問題를 구실로 해서 會談再開를 拒否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貴側이 우리의 特定人 問題를 赤十字會談에 介入시켜가지고 이 赤十字會談을 混濁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貴側의 태도가 지금까지 赤十字 本會談의 再開를 어렵게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또 오늘 이자리에서 貴側에서 文益煥牧師·林秀卿孃 問題를 거론했는데 나는 이 問題가 우리 赤十字會談과는 아무런 關聯이 없는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赤十字社가 간여할 性格의 問題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赤十字會談 領域 밖의 일입니다.

赤十字會談 領域 밖의 일을 이자리에서 擧論한다고 하는 것은 이 赤十字가 政治에 간여해서 안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赤十字는 政治的·思想的 性格을 지닌 論爭에 介入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赤十字의 中立原則을 정면으로 違背하는 것입니다.

또 雙方이 그동안에 相對側의 秩序를 尊重하자 하는데 대해서 合意를 하였는데, 지금 貴側이 우리의 그와 같은 內部의 問題를, 秩序問題를 提起하는 것은 會議精神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赤十字會談의 使命이 무엇이냐.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南北 離散家族의 再會問題 입니다. 그런데 文益煥牧師·林秀卿孃 問題라는 것은 南北 離散家族 再會問題와는 關聯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貴側이 文益煥牧師·林秀卿孃 問題를 擧論하는 것은 우리 赤十字會談과는 關聯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赤十字가 간여할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會議 劈頭부터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會談外的 問題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實質問題 討議에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선 本會談問題 또 第2次「訪問團」事業問題에 관해서 貴側에서 제안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藝術團 公演回數를 4回로 하자 했는데 지난 85年에는 우리가 2回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公演內容 또는 種目紹介에 있어서 「공연을 自由意思에 따라서 하되 相對方을 비방하지 않는다」했는데 여기「自由意思에 따라서 한다」하는 表現은 지난 85年 우리 雙方 合意書內容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좀 變化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목을 여기에다 包含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取材와 關聯해서「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도록 한다는 前提에서 取材한다」그렇게 되어 있는데,「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는다는 前提에서 取材를 한다」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뜻인지? 그리고「家族相逢時에 人權이 侵害되지 않도록 한다」이것이 具體的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本會談 開催時期하고 第2次 訪問團 事業時期에 있어서 本會談 가운데, 11次 會談은 12月 15日로 지금 提議하셨죠? 그리고 第2次 訪問團 事業은 11月8日로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第2次 故鄕訪問團 事業을 먼저 꼭 해야하고 그뒤에 本會談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것이 不變의 條件인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北(박영수):예, 우리가 基本發言에서 이제 3가지 問題 案을 내놓았는데, 實務的인 質問에 答辯하기에 앞서서 이제 宋先生 發言에서 우리側이 文益煥牧師·林秀卿學生·文奎鉉神父 問題를 제기한 것을 赤十字會談과 관계 없느니 政治·軍事問題를 提起했다, 또 雙方 赤十字團體들이 기울여온 努力을 부정한다. 이건 상당히 嚴重하게 이제 우리가 問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 그 問題와 赤十字와 관계가 없다, 政治, 赤十字의 中立性의 原則에 정면으로 違背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問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人道主義會談에서 왜 오늘 우리가 이것을 提議하는가, 여기에 대한 그 뜻을 새겨들을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이 問題를 提起

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또 權利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文益煥・林秀卿 問題는 뭐 赤十字問題가 아니고 政治問題라고 하는데, 이것은 政治 以前의 問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林秀卿・文益煥 問題에 대해서 이걸 政治問題가 아니라고 하는가? 이것은 政治以前의 問題, 말하자면 統一問題이고 對話問題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統一을 위해서, 對話의 活性化를 위해서 平壤을 訪問하고 돌아간 사람들 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억류하고 그들에게 그 어떤 迫害를 加한다는 것은 결국 統一과 對話 자체를 공격한 것과 같은 것으로 …… 그렇다면 우리가 赤十字會談에서 統一問題를 直接 討議하자고 하는가.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赤十字人들은 어떤 合意事項을 가지고 있는가. 雙方은 이미 70年代 會談에서 同胞의 精神, 赤十字 人道主義精神, 7.4 共同聲明의 精神을 人道主義問題를 해결해 나가는데 具現하기로 合意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雙方이 지금 누누이 確認한 바에 의하면 우리 赤十字會談이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줌과 동시에, 그것을 그 과정에 統一의 디딤돌을 쌓아가기로 이것을 赤十字人들의 基本使命의 하나로 規定을 했습니다.

그런데 文益煥・林秀卿・文奎鉉神父 등을 지금 迫害하는 것은 그들이 統一의 디딤돌을 하나씩 놓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씩 허물어 내치는 것과 같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때문에 7.4共同聲明의 정신을 赤十字會談에서 또 人道主義問題를 해결해 나가는 全般에서 具現하기로 合意한 雙方 合意事項에 基礎해서 우리는 응당 이 問

題를 提起해야 한다고 認定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問題에 대해서 말한다면 本會談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提起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그 어느 3國을 訪問한 것이 아니라 共和國北半部를 訪問한 사람이고 특히 이들은 人道主義問題 解決을 共同으로 推進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雙方이 對話를 하자고 하면서 더구나 이렇게 마주앉은 이 마당에서 그런 사람들을 迫害하면 對話를 좋은 분위기속에서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마는 現實的으로 貴側 自體도 文益煥·林秀卿·文奎鉉 問題를 가지고 이 問題로 해서 赤十字會談을 無期延期시킨일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문제가 赤十字會談을 障碍하는 根本要因의 하나로 적어도 現時點에서는 가장 重要한 要因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8月2日 實務代表 接觸이 열렸으며는 벌써 訪問團 交換도 하고 本會談도 열릴수 있었으리라고 우리는 確信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問題 때문에 8月2日 接觸을 그쪽에서 無期延期시켰기 때문에 오늘에야 비로소 이 두가지 問題를 놓고 마주 앉아서 討論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事實上 8月2日 實務代表接觸을 無期延期시킴으로써 文益煥牧師·林秀卿學生·文奎鉉神父 問題가 會談을 障碍하는 要因으로 된다는 데 대해서 貴側이 스스로 認定한 것이 됩니다.

또 만약 이 問題가 政治問題라고 한다면 貴側이 人道主義會談에 政治問題를 개입시켰다는 것을 認定하는 것이 됩니다.

添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文益煥牧師로 말하면 그 自體가 이산가족이고 흩어진 家族이고 北에 들어와서 자기의 수십명의 가족·친척들을 만나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응당 雙方 赤十字團體의 보호를 받아야 할 對象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貴側에서 宋先生이 이것이 상관이 없는 政治問題이고 또 그것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말이고, 우리가 提起한 것이 應當한 것이라는데 대해서 똑똑히 좀 알고 우리가 提起한 대로 그들이 自由로운 몸이 되도록 赤十字社가 應當한 努力을 기울일 것을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南(宋榮大): 8月 2日날 豫見되었던 雙方 實務接觸이 延期된 背景을 貴側이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분위기가, 會談할 분위기가, 會談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는 바와같이 8月2日 직전에 貴側 當局에서 會談場所인 板門店을 政治宣傳場化 했습니다.

그러한 좋지않은 雰圍氣속에서는 우리가 會談을 해 봐야 별 滿足할 만한 成果를 거두기 어렵다 하는 判斷에서 일단 이것을 延期시킨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朴先生이 林秀卿孃 問題를 이리저리 자꾸 說明을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問題는 赤十字會談과는 관계가 없는 問題입니다. 왜 없느냐 그 理由를 제가 좀 이야기하죠.

우리 雙方은 第1次 本會談에서 赤十字會談 議題로 設定된 모든 問題를 赤十字 人道主義原則에 基礎하여서 討議·解決하기로 合意한 바 있습니다.

여기 雙方이 合意한 赤十字 人道主義原則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잘 아

는 바와같이 「赤十字가 政治的·思想的 性格을 지닌 論爭에 介入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中立의 原則」, 또 人類의 苦難을 豫防·輕減시키기 위한 「人道의 原則」등 7가지입니다.

그런데 林秀卿孃은 그동안 우리 大韓民國의 實定法을 明白히 위반한 行爲를 자행했습니다.

또 不法入北과 貴側 地域內에서의 活動 등은 우리側 關係法規를 違反했습니다.

따라서 林孃에 대한 司法處理는 法治國家인 우리 大韓民國에서 應當히 있어야 할 問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法的·政治的 性格을 지닌 問題를 이 赤十字會談에 나와가지고 擧論하는 것은 政治的·思想的 論爭 介入을 금지하고 있는 「中立의 原則」에 정면으로 違背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人道의 原則」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잘 아는 바와같이 人類의 苦難을 豫防·輕減시키자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實定法 위반행위에 대한 不處罰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人道의 原則」이라고 하는 것은 國家의 主權, 國內法 테두리 안에서 存在하는 것입니다.

人道主義라고 하는 미명하에 實定法 違反이 正當化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世界人權宣言이라든가 人權規約·제네바法을 보면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林孃의 實定法 違反行爲를 人道主義라고 하는 理念의 미명하에 이것을 美化시키고 正當化시키려는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問題를 이 자리에서 討議하는 것은 雙方이 合意한 赤十字會談의 使命·議題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赤十字會談의 基本使命·議題가 뭡니까? 南北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을 再會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雙方間에 여러차례 合意를 했고 確認해 온 事項입니다.

林秀卿孃은 南北이산가족도 아니예요. 또 우리 赤十字會談으로부터 어떤 代表權을 委任받은 그런 學生도 아닙니다. 따라서 赤十字會談과는 관계가 없는 이 學生問題를 이 자리에서 論議하는 것은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赤十字會談 本然의 使命과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뜻에서 더이상 이 問題를 가지고 우리 귀한 時間을 浪費하지 않도록 합시다.

다시 實質問題 討議에 들어가서 우선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오게 된 使命의 하나가 …….

北(박영수): 가만, 그 전에 實務問題 討議하기 前에 그 問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雙方이 合意한 「7.4 共同聲明」의 原則을 人道主義問題 解決의 전반에서 또 회담전반에 걸쳐 구현하기로 한다하는 合意事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제 發言에서 우리가 8月2日 會談問題와 관련해서 政治宣傳化 했다고 하는데 그 問題는 뭐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8月1日날까지 林秀卿學生이 판문점 統一閣에서 단식농성을 했는데 林秀卿學生이 왜 단식농성을 했는가, 우리 이것을 봐야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赤十字人들인 이상 …….

그는 이미 7月달부터 판문점을 통해서 서울로 귀환하겠다 이것을 한두차례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는 한 4,5 차례에 걸쳐서 7月27日날 판문점을 통해서 서울로 귀환하겠다, 明白히 자기가 宣布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판문점으로 7月27日에 귀환하는 것을 결국 막지 않았는가? 막았기 때문에 林秀卿學生은 부득이 판문점을 통해서 서울로 가고 싶은 자기의 심정을 어떤 다른 말로 表現할 수 없기 때문에 단식으로 자기의 意思를 表示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의 단식에는 林秀卿學生 혼자만이 아니라 숱한 外國人들 또 海外同胞들이 같이 參加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서도 여러차례 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단식 5일째만에 쓰러지면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 赤十字人들로서는, 적어도 내 생각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8月2日 會談에 나와서 그쪽에서 위문방문이라도 했으면 아주 좋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林秀卿學生 問題에 대해서 實定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實定法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내가 이자리에서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實定法 自體를 가지고 이게 어떠니 어떠니, 내가 그 얘기는 아직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對話를 하자고 하고 統一을 하자고 하고, 요 며칠전에도 貴側에서 高位當局者가 統一方案이라는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또 「7.7宣言」에서도 統一方案을 내 놓았고. 거기에서는 南北關係를 적대관계가 아니라 同伴者關係, 民族共同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한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對話에 妨害로 되는 그法에 따라서 바로 統一을 위해서, 對

話를 위해서 좋은일을 한 사람들을 그렇게하면 되는가 …… 우린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갈라져 있다가 이걸 도로 합치자고 지금 하는 이 마당에서, 그걸 위해서 對話를 하자고 하는 이 마당에서 어느 一方의 法을 가지고 統一을 위해서 對話를 위해서 좋은일을 한 사람들을 處罰하면 되겠는가? 이것이 對話雰圍氣를 惡化시키지 않는가? 우리는 그겁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우리 8月2日 接觸이 無期延期된 것이나 最近時期에 여러갈래 對話도 再開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最近時期에는 이 問題때문이다 그것입니다. 이 問題때문에, 다른 問題있습니까? 그건, 거 否認하지 마십시요. 그렇다면 이 對話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問題를 提起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主張한대로 要求한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들이 釋放되도록 赤十字가 할 수 있는 이 應當한 努力을 해야된다고 우리는 認定합니다. 바로 이길이 人道主義會談을 잘하는 길이고, 또 나아가서 흩어진 겨레들의 不幸과 苦痛을 實質的으로 덜어주는 길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南(宋榮大) : 아, 좀…….

北(정덕기) : 이제, 우리 단장동지가 애기를 했지마는 宋先生이 아까, 그, 文奎鉉神父라든가, 文益煥牧師, 또 林秀卿代表에 대한 問題가 赤十字하고 關係없는 이런 問題다, 이런 애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동무가 몇가지 說明을 했는데, 내가 더 添附해서 애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赤十字 實務代表接觸에서 이 問題를 중요한 問題로 提起하는가? 그 原因이 이런데 있습니다. 이 赤十字會談에서는 雙方間에 自由

來往問題를 實現하기로 原則的인 合意를 보았습니다. 貴側도 얘기하였지만 이제 몇차례의 會談을 進行한다 하게되면 自由來往問題가 妥結될 수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봅니다.

自由來往問題가 妥結된다면, 貴側의 얘기대로 빌면 南의 500萬, 北의 500萬 흩어진 家族만해도 千萬 離散家族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親戚까지 합치면 몇천만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家族·親戚들이 自由來往을 實現하면 北과 南을 오고가야 합니다.

그런데 몇백만, 몇천만이 오고가야 하겠는데 몇사람이 北에 왔다간 사람들을 處罰한다 하게되면, 이 몇백 몇천만의 離散家族들이 누가 北에 오겠다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貴側이 하면서 흩어진 家族·親戚問題를 풀자고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누가 北에 왔다가, 處罰 당할려고 北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應當 關心을 돌리고, 中止해야할, 中止해볼 問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이 問題를 提起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宋先生이 이 問題가 人道的 問題하고 無關하다, 赤十字原則에 맞지 않는다……. 그렇지요? 宋先生이 아마 좀더 人道主義原則에 대한것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

南(宋榮大):저기…….

北(정덕기):赤十字 人道主義原則 제일 첫 條項에는, 人道性原則에는 사람들의 苦痛이 그 어디에서 發生하던 관계없이 그들의 苦痛을 덜어주기 위해서 赤十字國際機構나 民族團體들은 모든 努力을 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原則에 놓고 볼 때에도 우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赤十字會도 應當 여기에 關心을 돌려야할 問題이며, 南朝鮮赤十字社도 여기에 關心을 돌려야할 이런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宋先生! 길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말고 그들이 自由로운 몸이 되도록 이렇게 南朝鮮赤十字가 努力한다면, 앞으로 北과 南으로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問題를 풀어주는데도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南(宋榮大):지금 貴側 發言을 죽 듣고 보니까 貴側에서는 지금 離散의 苦痛을 겪고있는 1千萬 離散家族들 보다도 林秀卿孃 한 學生을 더 重要視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林秀卿孃 問題하고 關聯해서 貴側이 내놓은 要求가 貫徹이 안된다고 한다면, 이 赤十字會談 못하겠다는 겁니까? 이 實務接觸進行 못하겠다는 겁니까?

北(박영수):예, 내가 대답을 하지요, 그 問題에 대해서…….

南(宋榮大):이것이 前提條件이냐 하는 얘깁니다.

北(박영수):어려운 대답이 아닙니다. 지금 宋先生은 우리가 1千萬의 離散家族보다 林秀卿學生 個人의 不幸과 苦痛을 더 重視하는것 같다.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바로 北과 南으로 흩어진 家族·親戚들 모두가 일천만이 되는지 뭐 이천만이 되는지 그 숫자는 지금도 우리 正確히 모르는데, 그사람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사람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가장 包括的이고 가장 빠른 길은 自由來往입니다.

대략 이미 赤十字本會談에서 合意되어있고, 바로 우리는 그 問題를 討

議하기 위해서 本會談을 再開하자고 하는 겁니다. 12月 15日에 再開합시다. 그건 再開하는데, 林秀卿學生 問題를 提起하는, 文益煥牧師, 文奎鉉神父 그사람 問題를 提起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問題가 北南赤十字會談을 包含한 모든 北南對話에 障碍를 造成하는 根本要因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對話를, 人道主義會談을 좋은 雰圍氣속에서 하기 위해서 바로 이 問題를 提起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말로 말하며는 지금 文益煥牧師·林秀卿學生·文奎鉉神父問題로 해서 北南關係가 惡化되고 있는것만은 事實이 아닌가, 이거는 우리가 否認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問題를 除去하는데서 그런 障碍要因의 重要한 한 側面을 除去하는데서 우리 赤十字도 應當 自己의 使命에 맞게 또 自己 活動 原則에 맞게 이 問題를 赤十字가 할것은 赤十字가 해야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宋先生이 그런 式으로 이야기하는 自體가 提起하는 自體가 맞지않는 主張이라고 보면서, 왜그렇겠습니까? 이 問題가 解決되지 않으면 안되는건가 물어보는데 그럼 내 反對로 이사람들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事業을 南側赤十字社에서는 그래 전혀 關心을 안돌리겠다는 것인가요? 이걸 전혀 안하겠다는 것인가요?

우리는 세가지 提案을 같이 내놓았단 말입니다. 어느 하나만 내놓은것 아니잖아요, 同時에 다 解決해야지요.

南(宋榮大):지금 林秀卿孃 問題가 障碍要因이라고 했는데 그말은 결국 林秀卿孃 問題에 關한 貴側의 要求가 관철되지 않으면 赤十字會談은 못하겠다, 前提條件이냐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對答해 주세요.

北（박영수）：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걸 對答했는데 바로 이게 前提條件이냐 아니냐 이렇게 問題가 서는게 아니라 이 問題는 우리가 赤十字本會談을 잘하기 위해서도 이 問題를 꼭 解決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다른 問題와 함께 우리 이거 안되면 이거 안한다는 이런 問題가 애당초 서지 않는다 그말이죠.

北（김광수）：다같이 해라，같이 해야 될 이야기다 이거죠.

南（李柄雄）：오늘 우리가 지금 모인것은 本會談問題와 故鄕訪問團 問題때문에 모였는데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는것은 이 基本的인 問題를 이제 벗어나게 되니까 더 얘기를 하지말고 本質的인 問題討議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아까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쪽에서 北韓에 가며는 잡아 넣는다고 그랬는데，나도 대여섯번 왔다갔다고 해서 잡혀 들어간 것도 아니고 問題는 서로가 양쪽에 각각의 秩序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秩序에 따라서 우리가 解決하는 問題이기 때문에 그 問題를 가지고 여기서 오늘 이야기한다고 하면 本質的인 問題討議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南과 北에 있는 모든 同胞들이 오늘 여기서 어떻게 좋은 소식이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問題만 가지고 우리가 討議할 必要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本論的으로 들어가서 本質的인 이야기를 합시다.

北（김광수）：이제 宋先生이 이야기한데 대해서 한가지 이야기하는데…….

實定法에 대한 것이라든가 赤十字와 無關한 問題라든가 秩序問題를 이야기하는데，7.7宣言에는 우리가 보건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째 條項에 政治人, 經濟人, 言論人, 宗教人, 文化·藝術人, 體育人, 學者 및 學生 등 南北同胞間에 相互交流를 積極 推進하며 自由로이 南北을 來往하도록 門戶를 開放한다. 門戶를 開放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問題는 그렇다면 7.7宣言은 南朝鮮의 現實定法을 無視하고 하는건지,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여기에 問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現實定法이니 뭐니 이야기하지 말고 7.7宣言에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된 사람들 여기 宣言해놓고 開放한다고 宣言해놓고 그 宣言에 따라서 平壤에 온 사람들을 그렇게 處刑한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다고해도 그 사람들을 다 處理하기 보다도 누구는 그렇게 處理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오손도손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南(李柄雄): 다른 方向의 이야기를 합시다. 이거 時間만 가지 왜냐하면 人道的인 問題에 대해서…….

北(김광수): 李先生 내 얘기한 뒤에 얘기하세요. 우선 내 이야기하고 發言할 機會를 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處理하고 어떤 사람들은 處理안한다. 이렇게 얼룩이 가게 얼룩이 가고 處理되는 여기에도 矛循이 있고 그러면 權限이 있는 사람은 왔다가도 處理안되고 없는 사람은 왔다가면 處刑되고 이러면 밑에있는 흩어진 家族·親戚 1千萬離散家族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누가 올려고 하겠습니까? 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좋은 合意를 해놓아도 나래도 오지 않겠습니다. 平壤에 돌아가기만 하면 處刑당하는데 어떻게 마음놓고 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柄雄先生도 그거 생각해 볼 必要가 있어요.

南(李柄雄):글쎄 경우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하면 이게 자꾸 딴데로 돌아가게 되는데 人道主義的인 問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거보다 더 급한 問題가 또 있어요? 事實은 내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더 급한 問題가 있지마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안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모인 理由가 어떻게 하든지 故鄕訪問團問題, 本會談問題 이것을 빨리 解決하기 위해서 이야기할려고 하는건데 지금 다른 애기를 하다보며는 언제 이 問題를 解決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程度로 접어두고 오늘은…….

北(정덕기):우리가 提起한 取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團長동무가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이야기도 안하고 조금 이야기했는데 文益煥牧師, 文奎鉉神父 그리고 林秀卿學生에 대한 處理問題를 놓고 우리 北半部人民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하면, 이거 아무래도 統一을 主張했고 統一을 그렇게 목이타게 외치다 간 처녀애까지 또 70高齡의 老牧師까지 南朝鮮當局이 그들의 손에 쇠고랑을 채울 정도가 되며는 이제는 아마 우리하고 對話도 안하고 統一도 안하자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民心의 動向입니다, 우리 北半部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마는 文奎鉉神父가 여기와서 北에 와서 우리 體制를 이렇게 찬양하고 南의 體制를 誹謗하고 그런게 없습니다. 聯邦制方式의 自己 統一主張을 이야기했고 또 漸次的인 方法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强調했습니다. 自己式으로…….

林秀卿이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 대해 크게 讚揚한 것도 없고 南쪽 體制에 대해서 誹謗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우리 祖國을 사랑하고 나의 父母 나의 學友들이 있는 大韓民國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板門店을 통해서 내 祖國, 내땅을 내걸음 내발로 걸어가야 한다」고 했던 나어린 女學生입니다. 그런 그가 自己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땅에 가서 그리운 兄弟들도 만나지 못한채, 學友들도 만나지 못한채 손에 수갑을 차고 囹圄의 몸이 됐습니다. 참 가슴아픈 일이죠.

7.7 宣言에서 北과 南사이에 이렇게 交流도 하고 往來도 한다고 했으면 그들의 行動이 어떻게 利敵行爲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장 貴赤十字側에 그에 대한 무슨 措置를 취하라 이런것도 아니고 우리 立場을 얘기했고 그것을 가서 當局에 反映해서 이렇게 하는것이 赤十字의 使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것을 좀 우리가 이야기 했는데 잘 부탁합니다.

南(李峻熙): 정先生!

北(정덕기): 예.

南(李峻熙): 오늘 우리가 나올때에는 우리 모임이 赤十字 本會談과 故鄕訪問團·藝術團 交換의 實務的인 問題에 대해서 아까 우리 首席代表도 말씀했지만 오손도손 얘기가 그렇게 進行될줄 알았는데, 冒頭에서 부터 얘기가 相對側에 대한 問題를 提起를 하고 있고 貴側이 이런 問題를 너무 提起하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얘기를 안할 수 없어서 합니다.

모든것이 지금 貴側이 提起하고 있는 이런것은 會談外的인 問題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며는 會談에 대해 貴側이 臨하는 姿勢부터 疑

心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狀況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赤十字 問題를 한다 할것 같으면 赤十字 本然의 姿勢에 立脚해서 實務問題를 處理해야지, 지금 林秀卿問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現存하는 實定法規를 違反했다 이겁니다. 犯法者다 이거예요. 不法入北을 한 犯法者다 그겁니다.

어느 體制를 막론하고 그 體制의 安全과 秩序維持를 위한 法이 있어요. 그 法을, 우리의 法을 어긴것이 林秀卿이라 이겁니다. 實定法을 違反한 犯法者라는 뜻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 法이라는 것이 우리의 安全과 秩序, 어느 體制나 마찬가지입니다, 貴側은 안 그렇습니까? 그 어떤 特定人의 權利를 剝奪하거나 自由를 制限하자는게 아니예요.

우리가 貴側의 境遇도 내가 알기에는 憲法에서도 貴側에 規定되어있고 憲法에도 規定이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資料를 보니 貴側도 憲法에 보면 「祖國과 人民을 背反한 者는 法에 따라 嚴重히 處罰한다」 그렇게 規定하고 있고, 또 刑法에 보면 「外國으로의 脫走罪」뭐 이런 등등해서 10餘가지 罪目이 있는데 이를 違反하면 死刑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立場을 바꿔놓고 볼때 만약 貴側이 말이지요, 貴側의 어린 學生이 貴側當局의 許可를 받지 않은채 不法으로 우리 이 南쪽으로 왔을때 貴側은 이를 處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問題를 볼때 이 問題에 대한 處理는 또 法秩序를 違反한 사람들에 대한 處理는 어디까지나 大韓民國의 法과 節次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이걸 가지고 貴側當局이나 또 貴側이 더군다

나 이러한 赤十字 實務會談에 나와가지고 是非하거나 干涉할 事項은 결코 아닌겁니다.

北(박영수): 예, 내가 좀 이야기합시다.

南(宋榮大): 가만 있어요. 朴先生! 우리 이야기가 다 끝나고 …….

北(박영수): 끝나지 않았어요?

南(李峻熙): 그리고 김광수先生도 아까 「7.7宣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7.7宣言」의 基本精神하고 참뜻을 올바르게 理解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貴側은 그것을 상당히 歪曲하고 惡用해서 우리의 實定法 秩序를 違反하고 貴側地域에 몰래 들어간 林秀卿을 庇護하고 거꾸로 마치 우리는 우리의 法에 따라 處理한 것을 彈壓이니 무슨 迫害니 하고 云云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7.7宣言」의 基本精神은 敵對的이고 對立的인 南北關係를 和解와 協力的인 그러한 關係로 轉換시켜서 民族共同體 意識을 바탕으로 한 平和統一의 길을 닦아나가자는데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各界各層의 人的交流가 또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貴側이 留意해야 할 점은 이러한 南北間의 人的交流가 어느 一方의 政治工作이나 또는 政治宣傳을 위한 目的으로 해서 秘密裡에 또 우리의 法을 違反하고 不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南北 雙方當局이 協議하고 合意를 거쳐서 正常的인 節次를 밟아서 오고가는 것이야 그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實務接觸에서 故鄕訪問團을 交換하자는 것도 雙方이 合意하고 協議해서 正當한 節次에 의해서 오고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過去에 1次 故鄕訪問團 갔다 온 사람을 우리가 어디 수감

을 채운 事實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法을 違反하며는 어느 體制나 現行法을 違反하면 수갑을 차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긴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實務接觸에, 밖에 報道陣도 다 있지 않습니까? 빨리 무언가 우리가 協議를 해서 무엇을 推進해야지 지금 相對方體制에 대한 어떠한, 그 林秀卿이니 文益煥이니 이러한 우리로 봐서는 分明한 犯法者인데 그사람들을 여기다가 協商테이블에 올려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貴側의 姿勢가 疑心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北(박영수) : 됐습니다. 그럼 내가 저 …….

南(宋榮大) : 우선 이렇게 합시다. 그 쪽에서 두분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側에서 이제, 가만히 계셔요, 우리 지금 李代表가 이야기했고 내가 좀 이야기 한 다음에 …….

北(박영수) : 뭘 둘둘씩 이야기 하자는것 같은데 꼭 그렇게 되겠어요?

南(宋榮大) : 나는 아까 朴先生이 林秀卿孃·文益煥牧師 꺼낼때에 이 會談하고는 關係가 없으니까, 좀 삼가해 주기를 바래가지고 몇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貴側에서 이 問題를 擧論하기 때문에 제가 不可分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金先生이나 鄭先生 말을 들어보니까 林秀卿孃의 貴側地域內에서의 行爲를 相當히 正當化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보느냐.

林秀卿孃이 貴側地域內 들어가서 「南韓政權은 統一을 바라지 않는 勢力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南韓政權은 反統一勢力이다 하는 말이예요. 南韓政權이 反統一勢力이라고 한다면 우리 大韓民國 政府를 뽑은 國

民들도 統一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國民들에 대한 重大한 冒瀆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學生이 分明히 우리 大韓國民의 實定法을 違反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人道主義라고 하는 美名, 統一이라고 하는 美名으로 正當化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赤十字會談을 18年 동안 해오면서 한가지 合意하고 實踐에 옮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相對側의 秩序와 案內에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本會談을 할 때도 相對側의 秩序와 案內에 따른다 하고 合意하고 그대로 모든 것을 해왔고 또 85年에 1次 訪問團 事業할 때도 合意文案에 分明히 이 文句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相對側의 秩序에 따른다는 것이 무슨 얘깁니까? 相對側의 秩序를 尊重한다는 얘기입니다.

相對側의 秩序를 尊重한다는 것은 相對側의 法秩序를 尊重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意味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貴側의 法秩序·內部問題에 대해서 전혀 干涉하지 않았습니다. 是非한 일 없어요. 그런데 貴側은 지금…….

北(박영수): 시비할게 없으니까 시비하지 않았지 뭐…….

南(宋榮大): 우리가 할 말은 많지요.

내가 여기서 그 말을 다하게 되며는 우리 會談 雰圍氣 흐려지고 貴側 立場이 난처해지니까 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와같이 相對側의 秩序 尊重하자 했으며는 그

정신을 貴側에서도 잘 留念을 해서 實踐에 옮겨줘야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얼마전에 林秀卿孃 아버지가 우리 신문에다가 딸 문제와 관련해서 글을 하나 쓴게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며는 「어린 학생을 政治的으로 利用하는 행위를 中止하지 않는다며는 6千萬 겨레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術手는 민족의 꿈을 저버리는 反統一的·非人間的 處事라고 하는 糾彈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나라의 法을 어겼으면 여기에 마땅한 責任도 져야 된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林秀卿孃 아버지의 心情이 지금 우리 국민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심정과 똑같다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와같이 會談外的問題가지고 우리 지금 무려 두시간 가까이 지금 浪費했습니다. 더이상 이야기 하지말고…….

한가지 貴側에 제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雙方이 내놓은 제안을 보니까 本會談 開催問題, 第2次 故鄕訪問團 事業問題에 있어서 差異點도 있지만 共通點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냥 헤어질 것 없잖아요. 뭔가 그래도 한두가지라도 合意를 해서 그 결과를 밖에 나가서 우리 겨레들 앞에 발표를 해야지요. 하기 때문에 本會談 開催問題와 관련해서 지금 貴側에서 날짜를 12月15日날로 제기했는데 우리는 11月1日로 했습니다.

北(박영수):조금전에 이야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宋先生도 많이 얘기를 했고 峻熙先生도 많이 얘기를 했고 상당히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길게 얘기하지 않고 다 얘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會談外的인 問題다, 實定法違反이다 뭐 承認받지 않고 北쪽에서 갔을 때는 뭐

處罰안하겠는가 이런말들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政治工作이란 말까지 나오고, 내 그걸 다 解明하자며는 내 지금 머리속에도 자료가 다 있고 政治工作이 아니라는거 文益煥牧師가 지난해 9月부터 平壤訪問을 推進시켰다고 하는 자료들을, 文益煥牧師의 發言原稿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 그 問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나 明白히 해야 될 것은, 이것은 明白히 해야 될 것 같아요. 「會談外的인 問題다」 자꾸 이러는데 이게 會談外的인 問題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會談앞에 難關을 조성하는 根本要因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자꾸 會談外的인 問題다 이렇게 말하는건 무리이다. 아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못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北南關係가 惡化되고 있고 또 會談에 障碍를 받고있고 한데 이게 왜 회담외적인 문젠가.

그리고 이 문제는 벌써 그 사람들 個人의 問題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벌써 北南關係 問題로 되었다 그말이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내 아까도 말했지마는 第3國에 갔다와서 逮捕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왔다 갔어요. 우리하고 통일문제를 論議하고 가서 또 우리하고 人道主義問題를 잘 推進시키자고 合意하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이젠 벌써 北南關係 問題로 되었다 그말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제기할 權利가 있다. 그래서 제기한거다. 이걸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넓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實定法에 內部問題 이런 의미에서 그쪽 내부문제 만으로 되지 않았다는 걸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相對側 秩序와 案內에 따른다」 雙方 合意事項에 물론 있지요. 이걸 누가 否認했습니까? 부

인하지 않지요. 그러나 相對側 案內와 秩序問題 이거는 會談할 때 문제고 이걸 林秀卿學生과 文益煥牧師, 文奎鉉神父 問題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別個問題라 아예 宋先生이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柄雄先生 「난 대여섯번 갔다왔는데 逮捕되지 않았다」하는데 바로 거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 李柄雄先生은 逮捕안되는데 그 사람들만 逮捕당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잖겠어요?

南(李柄雄):얘기를 또 꺼내서…….

北(박영수):아니 가만 있어요. 내가 얘기를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林秀卿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말도 내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하며는 어린 학생을 政治的으로 利用한다 이건 아마 그쪽 政府에다 대고 더 말한 것 같아요. 내가 보건대는…….

最近에 在野, 言論, 學生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承認받지 않고 갔을때 하겠는가 하며는 承認, 뭐 왜 좋은 일 하러 간다는데 승인을 안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승인을 받지않고 한거는 그쪽에서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은거 아니예요?

임수경 학생만해도 그쪽에 統一院長官도 初期에는 별문제없다고 祝典參加問題를 肯定的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 저 代表로 나오던 분 정용석선생 交流推進委員會 委員長 事業을 했지요? 이제 그 분도 6月初엔가 저 交流推進委員會하고 함께 會談하자고 할 때 書面으로 제기를 해오며는 자기네 이거 肯定的으로 해 주겠다 다른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도 말했다가 마지막에 承認을 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긴 가야 되

겠고 그러니까 온건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제가 基本發言에서 얘기한데 대해서 그 취지를 좀 이해해 보십시요.

그리고 순서를 놓고 말하면 宋先生이 먼저 基本發言하면서 우리 平和統一委員會하고 文益煥牧師와의 共同聲明을 基本發言에서 言及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걸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꺼낸 건 따지며는 그 쪽이 먼저 다 그건 명백히 합시다.

南(宋榮大):아니 文益煥牧師 問題 꺼낸 것은 貴側에서 우리한테 지난번에 보낸 便紙에서 먼저 제기되었지요.

北(박영수):편지에서 論議된걸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자는 겁니까?

南(李柄雄):貴側에서 먼저 提示를 했지…….

北(박영수):오늘 會談은 회담인데 회담에서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南(宋榮大):會談이란게 어떤 背景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걸 斷切시켜 버리고…….

北(박영수):가만, 이제 그럼 結束합시다.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提起한 취지를 좀더 깊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宋先生 자꾸 實務問題討議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反對없습니다. 實務問題 토의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우리가 基本發言에서 文益煥牧師·林秀卿學生·文奎鉉神父問題에 대해서 우리가 점잖게 提起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貴側에서 돌아가서, 뭐 이자리에서 答辯하라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한다는데 그저 우리는 그렇게 理解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實務問題 討議에 들어갑시다.

내 대답을 하지요. 그쪽 제기된 질문인데 우선 藝術團 公演回數問題,

왜 4回로 했는가 그전에는 2回로 했댔는데 이거지요? 제일 첫번째 質問이 이거지요?

南(宋榮大):예.

北(박영수):藝術團 交換公演問題와 關聯해서 우리가 조금 그전보다 提案을 달리 한것이 몇곳 있습니다. 몇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씩 내려가며 討論하면 될 것이고.

왜 2回로부터 4回로 했느냐? 이 문제는 藝術公演團 交換한 以後에 어떤 여론들이 提起되었는가?

우리가 저 人民들, 大衆을 無視할 수 없잖아요? 좋은 일 하면서도. 具體的으로 놓고 보면 公演을 2번하는데, 다 高官大爵에 있는 사람들만 보았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예요.

그저 두차례 하는데 한 2千2百名 劇場인데 대체 다 그런데, 2千名 가량되는 극장인데, 다 뭐 高官大爵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一般群衆은 하나도 못보았으니까, 이걸 될 수 있으면 幅을 좀 넓혀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우리 北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海外同胞들, 그 사이에 많이 만나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치하게 자기네 생각도 그렇지만 남쪽에 있는 群衆의 한결같은 의견이더라. 그걸 좀 광범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提起되었다고 그러길래 그러한 의견은 다 좋은 의견이고 이건 藝術團 交換公演하는 것도 바로 그저, 北과 南 사이에 화해를 도모하고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래서 公演回數도 4回로 늘렸는데, 그건 뭐 3박4일로 한다니까 그 이상은 더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러면서도 그걸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또 T.V로 소리

방송으로 實況中繼를 하자 그 제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公演內容 問題와 關聯해서는 자유의사에 의해서 하되 우리 제안이 具體的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며는……. 「예술단의 公演內容은 民族的으로 하며 相對側을 誹謗하거나 刺戟하는 것을 삼가한다」이건 宋先生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제안내용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南(宋榮大) : 몇 페이지 입니까?

北(박영수) : 9페이지 아니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公演內容은 自由意思에 따라 한다」이런 것은 없고…….

北(정덕기) : 아, 그것은 제일 끝에…….

北(박영수) : 안내장문제 아마 거기 어디에 있을 겝니다.

안내장이든지, 實務的인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없고.

이 문제와 關聯해서 공연내용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1985년도 경우를 보며는 우리가 그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때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合意되어 있었지요?

南(宋榮大) : 내가 왜 문제를 提起했는가 하면은요. 지난 85년 합의때는 공연내용에 있어서는 「民族傳統의 歌舞를 中心으로 하고, 相對側을 중상·비방·자극하지 않는 내용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9페이지 보면 「公演內容과 公演種目 紹介는 公演者側의 自由意思에 따라 하되」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北(박영수) : 이 문제를,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할 問題라 그말이야. 왜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가 하며는 85年度 公演團 交換때 분명히 이제 합의는 宋先生 말한 그대로란 말이야.

그래서 公演 그때 紹介는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순전히 다음은 무슨 프로다, 이것만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쪽에서 평양에 와서 할땐 아나운서를 데리고 와서 公演도중에 紹介를 굉장히 했단 말이요.

北(김광수): 그거 峻熙先生이 잘 알잖아요.

南(李峻熙): 소개를 뭐 굉장히 했단 말이예요?

北(박영수): 그 다음에 또 내용문제도…….

北(김광수): 內容도 기본한다고 해놓고도 다른 것 가뜩 가지고 나오고.

南(李峻熙): 사회자가 그 정도는 이야기해야죠.

南(李柄雄): 그 쪽에서도 司會者가 나와서 일을 했지요.

北(박영수): 아니 아니 그저 그건 事實이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理解하시요. 그건 뭐 엄연한 사실을 가지고 무얼 그러시요?

내용문제에 있어서도 그때는 그저 民族 傳統的인 歌舞를 위주로 하자 했는데, 우리는 13가진가? 14가진가 種目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 民族傳統的인 民謠·民族舞踊들이었는데 그쪽에서는 1部·2部 해놓고, 2部에는 무슨 「現代化」된 뭐 이런 것…….

이런 것은 民族的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 할 문제가 많은데 우리 提案에서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南(宋榮大): 아니, 朴先生!

北(박영수): 그리고 故鄕訪問團 交換問題와 關聯해서 「만날때 人權을 最大限 保障한다」그말이지요?

그뜻은 무엇인가 하는건데, 우리가 이 問題도 역시 85년도 經驗을 살

려서 이걸 提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한 40 ~ 45 년만에 만나는 사람들 이거든요, 故鄕訪問團 成員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45 년동안이나 떨어져 있으면서 그동안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그쪽에서 集體的인 場所에서 만나서 相逢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그때 故鄕訪問團 成員들이 抗議가 대단했어요, 이곳 저곳에서 提起되었어요.

무슨 장마당 같은데서 만나겠는가? 자기 아버지하고 부모들끼리 부모 자식간에 이야기하고 형제들간에 이야기 할 것도 많은데 …….

그래서 그사람들의 要求를 最大限으로 좀 保障해 주자. 그러면 나쁜것이 아닌 以上은 그런 뜻이 있고 …….

끝으로 藝術公演團, 本會談 再開問題 이런 時期에서 公演團을 先行시키는 것이 이게 不變인가? 그것이죠? 그 意見이죠?

南 (宋榮大) : 예, 그렇습니다.

南 (李峻熙) : 잠깐,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마당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家庭的 雰圍氣 속에서 便宜를 保障하며 지금 人權을 侵害하지 않는다는 것을, 장마당 같은데서 40 여년만에 만나는데 場所가 되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각 家庭으로 들어가서 家庭에서 같이 만나도록 그렇게 해 주자 그런 뜻입니까?

北 (박영수) : 그러니까 그런 內容도 있고 그다음에 85 년도에 할때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두 방식으로 나누어서 하지 않았어요?

첫째날은 「 集體的 」으로 하고, 둘째날은 「 家庭的 」으로 한다고 했는데, 家庭的으로 한다고 해 놓고도 자꾸 家族的으로 이야기 하는데 여러사람이 자꾸 끼어든단 말이요. 그래서 그러한 問題들 다시는 없도록 하자. 그저 家庭的으로 하면 그 사람들 자기네 家族들이 방에 들어가서 만나

도록 하자. 다른사람 뭐 들락날락 하지 말고 …….

北(정덕기):趣旨는 자유스런 雰圍氣 속에서 …….

南(李柄雄):그럼 다들 自己집으로 가보면 되겠구만.

北(김광수):여기서는 그뜻이 아니고 …….

北(정덕기):방법에 있어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자 …….

北(박영수):그래 그런 뜻이고 時期問題와 關聯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왜 故鄕訪問團 交換問題를 앞세우자고 하는가? 이 問題를 이제 간단히 言及을 했는데 우리의 趣旨는 그것입니다.

이 藝術公演團·故鄕訪問團, 이 交換을, 이 자체가 흩어진 겨레들에게 血肉들과의 相逢에 대한 그 기쁨과 同時에 希望입니다. 기쁨은 그 규정된 사람들에 한한 것이고 그 숱한 사람들이 그래도 아! 나도 이제 만날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希望을 주자는데 있는 根本 象徵的인 事業이 아닙니까? 이자체가 象徵的인 事業이니까.

이 主要한 目的이 거기에 있고 다른 하나는 本會談 雰圍氣를 좋게하자는데 더 重要한 目的이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것을 한번 雙方合意에 따라서 合意해서 척 해 놓으면 本會談에서 아주 本會談이 좋은 雰圍氣 속에서 아마 一瀉千里로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藝術團·故鄕訪問團 交換을 앞세우자. 그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대체로 提起된 問題에 대해서 그저 答辯을 드리면 그건데 우리 實務的 討議를 하자면 여러가지 條項이니까 끝이 없고 …….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 저것 오늘 뭐 여러가지로 이야기가 되었는

데 오늘 接觸을 이만 結束을 하고 다음에 나와서 實務的 討議를 繼續하는게 어떤가?

南(宋榮大): 예, 이게 우리가 3年 9個月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무런 合意도 없이 이렇게 헤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接觸을 지켜보고 關心을 기울이고 있는 離散家族들이나 겨레들을 失望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라도 合意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볼때 가장 意見이 接近되어 있는 것이 本會談 開催問題, 開催날짜에요.

우리도 11月1日날짜로 불렀고, 貴側도 12月15日날짜로 불렀고, 다만 이게 한달가량의 차이인데 이것을 조금 서로 調整을 해서 이자리에서 날짜라도 分明히 合意를 하고 돌아갔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제생각은 조금 우리는 12月1日에서 조금 뒤로 늦추고 貴側은 조금당기고 해서 중간쯤 해서 날짜를 決定하도록 하죠?

北(박영수): 이 날짜는 뭐 나는 간단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다음번 接觸에 나오든가 하면 이걸 藝術團·故鄕訪問團 交換날짜와 聯關 속에서 合理的으로 定하면 되겠으니까, 이 자체는 난 큰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南(宋榮大): 그래 큰 問題가 아니니까, 뭐 이자리에서 뭐 좀 …….

北(박영수): 아니 그게 무슨 問題가 있는가 하면 아직 雙方사이에 藝術團을 先行시키는가 本會談을 先行시키는가 하는 이런 問題도 있잖아요?

그래 또 더 具體的인 問題들은 많고 그러니까 오늘 이 程度로,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나서 진지한 意見을 交換하고 이제부터 또 빨리해

나갈 수 있는 基礎를 마련했다는 意味에서는 成果니까. 다음 그저 接觸을 해가지고 實務的인 問題는 간단히 處理하면 되지 않겠는가?

北(김광수):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제 2次 藝術團·故鄕訪問團도 交換한다. 本會談도 再開한다.

이렇게 나갔지 않았습니까?

北(박영수):이 實務代表接觸에서 妥協하게 된다면 合意가 되니까…….

南(宋榮大):또하나 强調하고 싶은것은 지금 貴側에서 第2次「訪問團」事業을 實施하는 基本趣旨가 本會談 雰圍氣 造成에 있다하는 말을 했는데, 勿論 그건 있지요 그런데…….

北(박영수):아니 그건 잘못 들었습니다. 그거 내 두가지다 그랬어요.

南(宋榮大):알았어요. 이산가족들에게 相逢의 기쁨을 안겨준다. 또 本會談 雰圍氣를 좋게 한다 하는데…….

北(박영수):그렇지요。

南(宋榮大):우리가 이 本會談 雰圍氣를 좋게 하자고 그러며는, 勿論 第2次 「訪問團」事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더 留意할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난 1月 24日 貴側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側 이산가족 4,346名의 가족찾기 依賴人 名單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貴側에서 그 4,346名 가운데 住所와 生死가 確認된 사람 名單을 우선 일부라도 보내 준다고 한다면 그 自體가 本會談 여는데 雰圍氣를 좋게하지 않겠는가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問題에 관해서도 좀 생각하셔서 다음번 나올때 答을 주시기 바랍니다.

北(박영수) : 예, 그 問題에 대해선 뭐 또 얘기하자면 뭐 또 많이 얘기가 되겠는데 그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건 本會談 1項 事業이니까 本會談 1項, 議題 1項 事業이고 그러니까 뭐 이제 또 그걸 論議하자면 時間이 가니까 일단 오늘 接觸은 이렇게 結束을 하고 다음 實務接觸에 나와서 계속 討論을 합시다.

그래 다음 接觸날짜를 언제로 하겠습니까?

南(宋榮大) : 우리側 생각으로는 일단 다음週 10月 6日날이 좋을것 같습니다.

北(박영수) : 10月 6日이 무슨 曜日입니까?

南(宋榮大) : 金曜日이예요.

北(박영수) : 10月 6日이 金曜日 …… 10月 6日.

北(김광수) : 10月 6日?

北(박영수) : 金曜日, 金曜日 좋습니다. 金曜日에 합시다.

南(宋榮大) : 예.

北(박영수) : 10月 6日 오전 10時, 그런데 다음 接觸과 關聯해서 場所問題를 또 이 자리에서 하겠는가. 아니면 좀더 조용하게 하려면 우리 「統一閣」에 좀 한번 다음번에 오던지?

南(宋榮大) : 그 問題는 결국 내 보기에는 우리 實務接觸이 아마 잘하면 다음번에 끝날 可能性도 있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會議를 하도록 하지요。

南(李柄雄) : 일단 끝내야지요, 이다음 會談에서 …… 金先生!

이 다음번에는 한번…….

北(박영수) : 그러면 하는 우리의 希望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만 합시다.

南(宋榮大): 자 수고했습니다.

北(박영수): 수고했습니다.

南(李柄雄): 수고하셨습니다.

南(李峻熙): 수고했습니다.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附 錄〉

代表團 記者會見

〈代表團 記者會見〉

* 日時 : 1989. 9.27 (水) 13:10 ~ 13:25

* 場所 : 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

* 發表 및 答辯 : 宋榮大 首席代表

1. 記者會見文

지금부터 오늘 實務代表接觸의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南北赤十字 實務代表들은 오늘 午前 10時부터 12時16分까지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에서 公開裡에 接觸을 갖고 第11次 南北赤十字會談 開催問題와 第2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交換問題 등을 協議하였습니다.

우리側 代表團은 오늘 接觸의 첫 發言을 통해, 中斷된 第11次 會談이 하루속히 열리고, 第2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이 빠른 時日 안에 實現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方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第11次 南北赤十字會談 開催問題입니다.

第11次 南北赤十字會談은 오는 11月 1日 平讓에서 開催한다.

둘째, 第2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交換問題

우선 訪問團 規模에 있어서는 團長은 各 赤十字社 責任者 1名으로 하고 故鄕訪問團 規模 各 300名, 藝術公演團 各 50名, 取材記者 各 100名, 支援人員 各 50名, 이렇게 해서 各其 總 501名 規模로 交換할 것을 提議를 하였습니다.

또한 訪問地 및 公演場所에 관해서는 離散家族 故鄕訪問人員은 자기 故

鄕을 직접 訪問, 家族과 親戚을 相逢하고 省墓를 하도록 한다. 또한 藝術公演團은 서울과 平壤에서 公演한다.

다음에 訪問時期 및 期間에 관해서는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交換은 오는 12月 8日부터 12月 13日까지 5泊6日 日程으로 實施한다 하는 것으로 提案했습니다.

그리고 故鄕訪問團 構成에 있어서는 故鄕訪問團은 南과 北에 故鄕을 둔 離散家族들로 構成하되, 相逢對象者가 確認된 離散家族을 優先的으로 여기에 包含시킨다.

그밖에 訪問團 名稱을 비롯해 訪問方式, 相逢範圍, 藝術公演團의 公演回數, 公演內容, 公演時間, 公演에 따른 事前措置, 身邊安全保障問題, 輸送·通信問題 등 諸般事項에 관해서는 先例에 따라 推進한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우리側의 槪括的인 提案內容입니다.

한편 北韓側은 本會談 開催問題와 第2次 「訪問團」問題에 대한 立場을 밝히면서 林秀卿·文益煥 問題를 擧論, 이들의 釋放을 위한 大韓赤十字社의 措置를 要求해 왔습니다.

北韓側은 이들의 問題가 「會談앞에 難關을 造成하는 障碍要因」이라고 主張함으로써 事實上 實質問題 討議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側은 이 問題가 赤十字會談과는 關聯이 없는 問題이고 이번 實務代表接觸의 使命과도 맞지 않음을 指摘하고 實質討議에 들어갈 것을 促求하였습니다마는 北側이 끝내 여기에 不應함으로 인해서 오늘 接觸은 별다른 合意없이 끝났습니다.

雙方은 次期接觸을 오는 10月 6日(金曜日) 午前 10時에 이곳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에서 다시 갖기로 合意하였습니다.

우리側은 次期接觸에서 赤十字 人道主義 原則에 立脚해서 實務代表接觸의

成功的 妥結을 위해 最先의 努力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以上이 오늘 接觸結果에 관한 대체적인 內容입니다.

2. 質疑·應答

質問: 이번 會談에서 가장 障碍였던 것이 林秀卿·文益煥牧師 擧論인데, 다음번 會談에서 北韓側이 이를 얼마정도, 어느정도 强度를 갖고 擧論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계속 거론해서 會談을 遲延시킬 것으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展望을 말씀해 주십시오.

答辯: 여러분들이 오늘 會談過程을 지켜보신 바와 같이 우리側은 文益煥·林秀卿 問題가 赤十字會談과는 關聯이 없는 「會談外的問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問題를 이 자리에서 討論하는 것은 적합치가 않다. 따라서 實質問題 討議에 들어가자 하는 立場을 取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反해서 北側은 이 問題가 會談앞에 難關을 造成하는 障碍要因이라고 고집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다른 討議의 進展을 보지못했습니다.

앞으로의 展望을 해보면 北韓側이 林秀卿·文益煥問題를 會談의 前提條件으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 하는 것이 會談進展의 관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北側이 오늘 會談에서 처럼 이 問題를 會談의 前提條件처럼 생각하고 이것만을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會談의 展望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北側이 오늘과 같은 그런 態度를 벗어나서 實質問題 討議에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會談의 展望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質問 : 北側에서는 故鄕訪問團을 먼저하고 本會談을 뒤에 하자는 것이고, 우리는 本會談이 먼저고 故鄕訪問團은 다음에 하자는 것으로 서로 順序가 바뀐것 같은데, 그것이 이렇게 어떤 쪽이 양보를 하면 妥協할 可能性이 있다고 보십니까?

答辯 : 앞으로를 豫測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北側이 林秀卿·文益煥問題를 會談의 前提條件化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고, 또 하나 問題는 오늘 雙方이 내놓은 提案, 그러니까 이 本會談 問題하고 第2次 「訪問團」問題에 대해서 雙方이 내놓은 提案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 共通點이 하나 있습니다. 意見이 接近되고 있는 點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雙方 모두가 다 이 두가지 事業을 年內에 實現하겠다 하는 이 點에 관해서는 意見이 接近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點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다음 接觸 때에 實質問題 討議에 들어가서 대체로 이 本會談 날짜 정하는 問題하고, 訪問團과 關聯해서 그 規模問題·訪問地問題·時期問題 뭐 이 정도에 관해서만 意見이 어느정도 접근된다면, 절충이 된다며는 이번 2次 「訪問團」事業은 쉽게 合意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展望합니다.

以上 質問이 없으시면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